

종합·해설

‘합종연횡’도 고난도 방정식으로?

민주 경선 컷오프 탈락자들 지지후보 ‘역선택’... 본선서 진검승부 전략

유인화·김명전 “反황주흥연대” 국령에 밀렸다

민주통합당 광주·전남 경선 후보자들이 컷오프에서 탈락한 후보들과 연대를 위한 물밑작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선거구에서 ‘지지후보 역선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지역정가에서는 이 같은 지지선언이 역선택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유인화 후보는 전남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소속 출마를 염두에 두고 국민경선에 참여하는 후보 중 상대적으로 본선 경쟁력이 약한 후보를 골라 지지한 뒤 본선에서 맞붙겠다며 ‘지지후보 역선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민주통합당 경선 후보 선정에 탈락해 무소속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김명전·유인화 예비후보가 7일 광주광역시에서 국령에 예비후보와 함께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협력을 다짐하고 있다.

장흥·간성·영암 선거구의 경우 이 같은 가능성이 가장 큰 지역구로 꼽힌다. 민주당의 전남 유일의 여성후보인 국령에 후보와 3선 강진군수 출신인 황주홍 후보가 경선에서 맞붙는 이 선거구의 경우 민주당의 경선 후보 선정을 앞두고 컷오프에서 탈락한 유인화·김명전 예비후보가 국령에 후보를 적극 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물론 세 후보는 이날 “민주당이 후보선정 기준으로 제시한 정체성·도덕성 및 당 기여도 등은 무리한 채 탈당과 복당을 반복한 당적 파문의 주범이자 군수 중도사퇴로 지역 갈등과 혼란을 야기한 후보를 경선후보로 선정한 공천심사에 분노한다”며 역선택 의혹을 일축했다.

이 탈락해 무소속 출마가 잇따를 지역역에서 역선택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조치가 탄탄하고 인지도가 높은 무소속 후보가 비교적 경쟁력이 약한 후보를 지원해 공천을 받게 하고 나중에 본선에서 맞붙는 전략을 짜고 있다는 것이다.

다. 한 경선 후보 측 관계자는 “국민참여경선은 각 후보가 얼마나 많은 지지자를 선거인단에 포함하느냐에 따라 당락이 갈리기 때문에 낙선 후보들이 자신들의 선거인단을 이용해 역선택이라는 전략을 쓸 수 있다”며 “이는 국민참여경선의 허점”이라고 말했다.

광주 북을 경선판도 요동

시·구의원 9명 ‘최경주 지지’에 김재균 의원은 ‘최경환 지원’

광주에서 유일하게 3인 경선이 치러지는 민주통합당 광주 북구 을 선거구의 경선 판도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 현역 김재균 국회의원이 공천심사에서 탈락함에 따라 지역위원회 소속 시·구의원들이 자체 투표를 통해 최경주 예비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했지만, 정작 김재균 의원은 최경환 후보를 지지하기로 해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이들은 김 의원이 공천심사에서 컷오프된 지난 5일 이후 3차례 연쇄 모임을 가졌으며, 표결을 통해 공동지지 후보를 결정기로 했다. 이들은 8일 최경주 후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식 지지의사를 표명할 계획이다.

4·11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순천시장과 무안군수, 강진군수 보궐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8일부터 시작된다. 민주당합당은 8일과 9일 이틀 동안 국민경선 선거인단의 모바일 투표를 실시하고, 10일 현장투표를 거쳐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

4·11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순천시장과 무안군수, 강진군수 보궐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8일부터 시작된다. 민주당합당은 8일과 9일 이틀 동안 국민경선 선거인단의 모바일 투표를 실시하고, 10일 현장투표를 거쳐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

4·11 총선 현장

이낙연, 전·현 지방의원 지지 받아

전종덕 “제주 해군기지 백지화할”

함평·영광·장성군의 전·현직 지방의원이 민주통합당의 담양·장성·함평·영광 선거구 19대 총선 후보로 이낙연 의원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이들 3개 기초자치단체 전·현직 지방의원 70명(함평 18명·영광 22명·장성 30명)은 7일 오전 11시 영광군 영빈 웨딩홀 2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통합진보당 전종덕 나주·화순 예비후보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사회, 제주도 등의 공사 중단 요구를 무시한 채 경찰을 앞세워 주민 등을 폭행한 이명박 정부를 응징할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국민적 저항을 감당할 수 없을 때가 곧 끝을 맞이할 것이다. 전 후보는 특히 “정부는 대참사가 예상되는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해군기지 건설사업 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훈, 동구 무소속 출마 선언

민주당합당 이병훈 광주 동구 예비후보는 7일 중앙당이 불법선거 운동 진원지가 된 광주 동구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권선거, 네거티브 선거로 호남정치 1번지라는 동구의 빛은 바랬고 주민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구태정치 심판으로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정용화 “발달 장애인법 제정”

정용화 광주 서구 갑 무소속 예비후보는 7일 발달 장애인 법 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이날 화성3동 광주 장애인부모회 사무실을 방문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 지적장애나 자폐와 같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관련 규정이 없다”고 지적하며 “최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 사건이 속출하고 있는 만큼 이를 사회구성원으로 주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성민 “민주 총선압승 힘모으자”

민주당합당 장성민 고흥·보성 예비후보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이 4·11 총선에서 압승하지 못하면 12월 대선에서 정권을 재창출하는데, 적신호가 켜진다”며 당 지도부가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촉구했다. 장 후보는 이날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의 실정과 새누리당의 가짜개혁을 국민 앞에 심판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도 국민적 기대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며 “민주당은 하루빨리 현재의 불화를 화합의 국면으로 치유하고 전환해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하진 “대입 ‘기회균등선발’ 도입”

민주당합당 장하진 광주 서구 갑 예비후보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학 입시에 있어 환경의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입시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며 “부모의 교육수준, 지원비용이 낮은 지역 지원 등을 우대하는 기회균등선발제를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5월단체 “5·18 정치적 이용 안돼”

(사)5·18 민주유공자유족회와 (사)5·18 민주화운동유공자회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5월 관련단체가 5·18 공법단체 추진 법안에 서명하지 않은 강기정 의원에 대해 공천반대 성명서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이는 진실을 왜곡한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강 의원은 지난 8년간 5·18 진상규명을 위해 앞장서 왔으며 5·18 정신에 입각한 의정을 펼쳐 왔다”며 “일부 5월 관련단체가 자신들이 추진하는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 의원을 비난한 것은 오월 정신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비정규직 없는 학교 만들어야”

4·11 총선에 출마하는 통합진보당 광주지역 후보들과 한연인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광주지부장은 7일 “19대 총선 공약으로 비정규직 없는 학교 만들기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등 돌봄 교실 강사와 유치원 종일제 강사의 해고와 주5일제 수업관련 비정규직 차별이 문제”라며 초·중등교육법 등 법규를 바꿔 정규직화할 것을 촉구했다.

전남 단체장 보선

8~9일 모바일투표

10일은 현장투표

Table with financial data for '제5기 결산공고' (5th Term Financial Statement Announcement) for (주)ITS 호남. It lists various assets and liabilities with amounts in Korean Won.

Advertisement for '漢字·漢文指導師資格' (Hanja/Hanwen Guidance Teacher Qualification) recruitment. It lists details for Kwangju Women's University and Kwangju Education University, including exam dates and fees.

Advertisement for '농성동 리더스하이 주택전시관' (Nongseong-dong Leaders' High Housing Exhibition). It features a large image of the building and provides detailed information about the project, including location, area, and contact details.